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of Terminalia
of Pichia terminalis

화단 및 집피용
수호초 개배



송정섭 | 이학박사

T.031-290-6140.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장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수호초, 요즘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옥상정원용으로 ...

화단이나 정원, 공원 등 외부 생활공간의 그늘이나 반 그늘진 곳에 심는 종
이로 수호초(秀好草)가 많이 쓰이고 있다. 맥문동과 함께 상록성이면서
키가 크지 않고 심어두면 성장속도가 꽤 빨라 조기에 지면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역에서 겨울에도 상록으로 월동하므로 사계절 볼거리를 주어 활
용범위가 넓은 식물이다. 문헌상 한국에 자생한다고 되어있으나 아직 자생지에
서 확인된 경우는 없는 듯 하며 우리나라에 심겨진 것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온
종이 아닌가 싶다. 영명이 Japanese spurge 이다. 키가 작아 분화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덩굴성으로 옆으로 깔리며 자라기 때문에 나무 밑이나 건물
그늘진 곳의 화단용으로 적합하다. 요즘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옥상정원용으로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생애주기


수호초는 상록 또는 반상록성으로 지구상에 4종이 분포한다. 회양목과에 속하는 상록다년초로서 원
줄기가 옆으로 기어다니다 끝이 서고 녹색을 띤다. 잎은 서로 어긋나며 층층이 모여 달린다. 다 자랐을
때 키는 10~20cm 정도 되며 꽃은 이삭모양을 한 수상화서로 4~5월에 흰색으로 핀다. 수호초는 여름의
더위나 겨울의 추위는 물론 건조에도 매우 강한 편이지만 습기에는 약하다.

2. 재배기술

수호초는 종자나 포기나누기 또는 줄기삽목으로 번식한다. 종자의 발아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기 어렵
지만 5~6월경 잘 익은 충실종자를 따서 바로 뿌리면 웬만큼 발아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은 이른 봄에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초여름에 습할 때 새로 나온 줄기를 잘라 삽목하면 쉽게 새뿌리를 내린다. 봄부터
초가을까지 줄기삽목은 언제나 가능하다.

원래 음지성식물이지만 반음지나 양지에서도 잘 견딘다. 음지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차광실험을 한
결과 차광을 많이 하면 키는 커지지만 분지수가 많이 줄어들며 반대로 차광을 작게 할수록 키는 작아지

지만 분지수가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35~55%정도 차광에서 생육이 가장 좋았으며 70% 차광에서도 거의 정상적인 생장을 보여 수호초가 다양한 음지조건에서 지면 피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심는 간격은 m²당 30~45주를 기준으로 하여 식재 후 바로 녹색으로 덮으려면 좀 베풀어 심고 2~3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퍼져 자라게 하려면 드물게 심는다. 거름기가 있는 곳이 생육이 훨씬 좋다. 심을 자리는 물 빠짐이 좋도록 미리 충분히 갈아엎어 주고 심은 뒤 새뿌리가 내릴 때까지 물을 충분히 준다. 7~8월에 지상부를 5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면 포기가 벌어져 지피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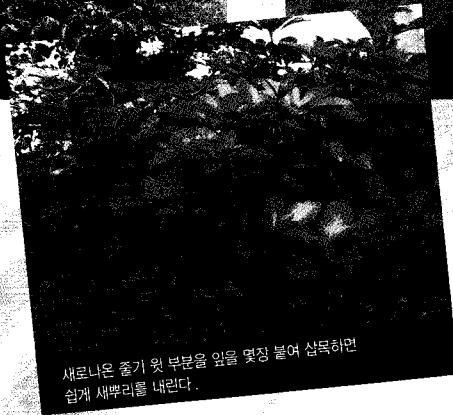
병충해는 별 문제가 없지만 너무 과습하면 뿌리와 줄기부분에 연부병이나 뿌리썩음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습하지 않도록 한다. 여름 고온 건조기에는 깍지벌레 피해도 발생하므로 처음 보일 때 살충제를 뿌려준다. 



농기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모습



둥글게 모아진 잎 기운에서 꽃이삭이 나온다.



새로나온 줄기 윗 부분을 잎을 몇장 붙여 삼목하면 쉽게 새뿌리를 내린다.